

정부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“재정-경제 선순환”을 구축하겠습니다.

□ 2026년 예산안 및 2025~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('25.8.28.)
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립니다.

□ 새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세입기반 확충, 재정수지·국가채무
관리 등을 통해 책임 있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.

○ (세입여건) 지난 3년간 경기둔화 및 감세 정책으로 100조 원 수준의
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.

* 세수결손('23년 △56.4조원, '24년 △30.8조원) + 세입경정('25년 추경 △10.3조원)

○ (재정수지) 지난 3년간 관리재정수지 실적은 △4%에 육박하였습니다.

* 관리수지(GDP대비, %): ('23결산) △3.6, ('24결산) △4.1, ('25.1차추경) △3.3

○ (국가채무)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함에 따라
적자성 채무 비중이 급격히 증가('23년 64.5%→'24년 69.4%)하는 등
채무의 질이 악화되었습니다.

<'22~'26년 국가채무 현황>

(단위: 조원, %)

구 분	'22년 실적	'23년 실적	'24년 실적	'25년			'26년 정부안
				본예산	1차추경	2차추경	
□ 국가채무 (GDP 대비 비율)	1,067.4 (45.9)	1,126.8 (46.8)	1,175.0 (46.0)	1,273.3 (48.1)	1,280.8 (48.4)	1,301.9 (49.1)	1,415.2 (51.6)
○ 적자성 채무 (비중, %)	676.0 (63.3)	726.4 (64.5)	815.2 (69.4)	879.5 (69.1)	900.9 (70.3)	924.8 (71.0)	1,029.5 (72.7)
○ 금융성 채무 (비중, %)	391.3 (36.7)	400.3 (35.5)	359.8 (30.6)	393.9 (30.9)	379.9 (29.7)	377.1 (29.0)	385.7 (27.3)

- 정부는 향후 ‘성과 중심 재정운용 → 경제 회복·성장 → 세입 확충’의 재정-성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,
-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조규산 (044-215-5720)
		담당자	사무관	유근정 (rmswjd90@korea.kr)
	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 장	황희정 (044-215-57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영 (jeanghim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	신지호 (shinjiho7@korea.kr)

